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정부, 무주·장수군 등 도내 군단위 5곳... 수해 피해 복구작업 '탄력'

무주군 무주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피해를 입은 무주군민들을 위한 지원과 국고 수혈이 가능하고 복구지원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무주군을 비롯해 전북도내 5개 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전북도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하면서 관철된 쾌거다.

이로써 무주군은 막바지 정확한 피해복구비를 산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하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80%

가 국비로 지원받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며 "무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복구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 7일부터 3일동안 집중호우와 지난 8일 초당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읍과 부남면 등지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난 19일 현재 34가구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도 피해가 극심한 부남면 일대에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방역대책을 점검·공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무주군, 전 군민 마스크 배부 등 방역에 만전

무주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방역대책을 점검·공유했다.

무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무주군에서는 현재 확진 환자 발생(국내 264명, 수도권 212명, 전북 4명)은 없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정군'으로서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10.18. 계도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군민 마스크 배부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주군청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함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방문객들에 대한 발열체크와 명부 작성을 실시하고 안전거리(2m, 최소 1m) 표시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3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반디랜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머루와인동굴, 도서관(형설지공&작은도서관-전화 대출서비스 시행), 산골영화관, 실내의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반딧불체육관 등), 관광안내소(전화 응대로 전환), 향로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등 관내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해 임시 휴관 조치했으며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등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안내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종교시설(80곳)에 대해서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고 소모임과 식사제공 등을 금지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무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의무라는 생각으로 6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라며 "군민 여러 분께서도 가족과 동료, 이웃을 지키는 마스크착용부터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와 비대면 예배활성화,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 장수군이 추가 선포됐다.

장수군은 정부가 추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의 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실제 장수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 지역에 100여개소 이상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농작물 유실 및 매물, 개정저수지 붕괴 위험에 따른 주민 긴급 대피 등 199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금액은 490억으로 최종 인정됐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액 132억을 국고 추가지원 받게 돼 지방비 부담을 덜고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 추가지정을 위해 군

은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 장수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을 보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은 주민 안전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수해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가 심한 산사태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 31일까지 추천 접수

진안군은 향토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를 추천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선발분야는 최고의 영예인 대장을 비롯하여 문화장, 공익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행장, 체육장 등 7개 분야이다.

수상자격 기준은 진안군에 1년 이

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진안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다.

대상자 추천은 31일까지 진안군청 행정지원과(430-2240)에 하면 된다.

군은 수상후보자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 후보자에

진안 홍삼스파·빌, 내달 한달간 휴장

진안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홍삼스파·홍삼빌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간 휴장에 들어간다.

진안군은 휴장기간을 이용해 홍삼스파 체험시설 개선, 타일교체 및 방수공사, 홍삼빌 에어컨 교체작업 등 대

지역 소식통

중산간부 버 생산단지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진안군은 25일 백운면 동창리 일원에서 군관계자 및 단지회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량종자 생산단지 참여회원의 역량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한 우량종자 버 생산단지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평가하는 시범사업은 중산간부에 알맞은 최고품질 조생종 버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됐으며, 버 보급중인 해당 산 채종단지와 연계해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생산단지 현장평가를 위해 버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을 살펴보고, 이어서 온탕소독기, 건조기 등 생력기자재와 보관창고 등 지원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단지회원들과의 종합 토의시간을 갖고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정보교환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산간부 버 우량종자 생산단지 30ha에 이르며 이 중 15ha는 단지회원 18농가와 국립종자원이 계약을 맺어 수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태풍 북상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26일부터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풍 관련 특보가 발령될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여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소방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양수기 및 고무부트 등 9종 99대 풍수해장비 및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 ▲야영객 태풍 전 순찰활동을 통해 사전 대피유도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 보강 및 안전 조치 강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휘보고·전파, 동시발 발 출동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